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연구

강 현 화 · 홍 혜 란 · 유 소 영 · 김 정 현
(연세대학교)

ABSTRACT

Kang, Hyounhwa · Hong, Hyeran · Yoo Soyoung · Kim Junghyun. 2019.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vocabulary materials based on the
principle of word formatio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54. 47-78.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a
practical design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based on the principle
of word formation and its application. First, the issues on selecting types
of word units used for Korean word formation for the syllabus design
were reviewed. And then 271 units used for word formation and the
list of more than 6,000 vocabulary were selected based on the study
of Kang(2014). As a next step issues were discussed about what should
be considered for presenting the selected words and vocabulary
effectively. Also, actual cases which applied aforementioned
considerations to their textbook development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consideration, 271 units were categorized into groups of 10
by their meanings. The textbook model was designed considering types,
meanings, and usages of the units for word formation, and consisted
of three steps: Presentation - Practice - Production.

(Yonsei University)

핵심어: 조어법(Word Formation), 단어 형성 원리(Principle of Word Formation),
파생어(Derivative Word), 합성어(Compound Word), 어휘 교재
(Vocabulary Materials)

1. 서론

어휘는 문법과 함께 언어 사용을 위한 기반 지식 요소로 언어 학습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이는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어휘력(lexical competence) 또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어휘력이란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 수, 즉 양적 측면에서의 어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휘의 형태와 의미, 용법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적 측면에서의 어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 학습 초기에는 기초 어휘를 중심으로 각각의 어휘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지식을 축적해 나가면서 어휘 능력을 키워 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양적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어휘력을 가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반복되는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낱말의 어휘를 학습하여 어휘량을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질적 어휘 능력과 양적 어휘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어휘를 배우고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는 중급 단계가 바로 이러한 시기라고 보며, 이 시기에 효율적으로 어휘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단어 형성 원리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급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한 어휘를 기반 지식으로 하여 파생어와 합성어의 형성 규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현화(2014)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출현한 어휘들을 분석하여 46%의 어휘가 복합어이며 그중 파생어가 26%, 합성어가 20%를 차지함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약 절반에 이르는 어휘는 단어 형성 방식을 통해 보다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략적인 어휘 교수·학습 방안으로써 단어 형성 원리의 효용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Nation(1990: 26)이 어휘 형태 지식의 하나로 강조한 ‘단어 구성소’(word parts) 역시 이러한 어휘 특성에 주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교수의 의의와 효용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교육을 위한 복합어 전반의 목록과 체계적인 어휘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교수·학습 자료는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교수·학습 교재 개발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용 조어 단위 선정과 제시 모형 설계에 관한 쟁점을 논의해 보고 어휘 교재 개발에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단어 형성 원리와 어휘 교수학습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언어 교육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중 단어 형성 원리에 따른 어휘 교수는 교수 자료의 구축, 교수 방법, 학습 전략의 차원에서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이다.

어휘 지식을 형태(form), 의미(meaning), 사용(use)의 영역으로 나눈 Nation(2013)은 형태에 대한 지식 중 하나로 단어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 부분(word part)에 대한 지식을 포함시키고, 어휘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어떠한 구성소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까지를 어휘 지식으로 보았다. 즉, 어휘 지식을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 의미, 그리고 각 요소들이 결합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조어법에 대한 지식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어 형성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파생 접사나 어근을 중요한 어휘 교수 내용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강한 주요 접사 목록을 가르치거나 복합어를 쪼개고 형성하게 하는 연습, 알맞은 파생형을 완성하게 하는 연습 등을 통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조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고 파악하도록 하는 단어 형성에 따른 어휘 교수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단어 구성소에 대한 수용적 지식과 생산적 지식을 교수하기 위한 방법들은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확장시키는 필수적인 학습 전략의 차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Nation(2013:390)은 그 이유로, 첫째, 새로운 어휘 학습 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접사와 어간의 의미를 관련시켜 새 어휘를 기억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둘째, 접사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족의 구성 요소와 그 단어족 간(between-family knowledge)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을 들었다. 바꾸어 말하면,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접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스스로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고, 어휘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직업을 나타내는 접미사 ‘-가(家)’를 학습했다면, 그와 관계된 ‘음악가’, ‘사업가’, ‘소설가’를 별도로 학습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조어 단위로 사용되는 어근 ‘방’이 ‘공간,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각각의 단어를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어휘력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가지는 관련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인지 체계 안에서 집합되도록 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도 용이하다 (Schmitt, 2000).

이와 같이 새로운 어휘를 추측하고, 생산적인 어휘 사용 및 어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써 단어 형성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어휘 학습 전략 중 하나이며, 파생과 합성과 같은 단어 형성법에 의해 많은 어휘가 생산되는 한국어 어휘를 교수·학습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조현용 2000, 김정은 2003, 구본관 2017 등)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어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어휘 교수의 필요성과 중요성, 효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어휘 교수·학습에서의 활용을 위한 교수 자료 개발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2.2. 한국어교육용 접사 및 어휘 목록 선정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용 조어 단위 및 어휘 목록 선정, 위계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원미진(2014), 유미상(2008), 고주환(2008), 서희정(2006), 정운주(2005)는 파생 접사 선정에 관한 연구로, 원미진(2014)은 <한국어 기초사전>(국립국어원)에 등재된 5만여 개의 표제어를 분석하여 접미사 102개, 접두사 40개를 선정하였다. 정운주(2005)는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국립국어원, 2003)에서 파생어 형성 빈도가 두 개 이상이면서 의미나 기능이 뚜렷하여 교수·학습에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90개의 접미사를 선정하였다.

두 연구가 접사 선정을 목표로 한 것과 달리 유미상(2008), 서희정(2006)은 선정된 목록을 등급화하는 데에까지 논의가 확장되었다. 유미상(2008)은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국립국어원, 2003) 목록과 300만 어절의 한국어 말뭉치를 기초 자료로 삼아, 한자어 파생 접미사와 접두사 및 파생어 목록을 선정한 후, 여기와 파생어를 수준별로 등급화하였다. 서희정(2006)은 <표준국어대사전>와 한국어 교재, 한국어 학습자용 어휘 목록(조남호 외 2003), 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김광해, 2003) 등의 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고유어 접두사를 선정한 연구이다.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학습자용 어휘 목록(조남호 외 2003), 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김광해, 2003)을 참조하여 접두사를 수준별로 등급화한 바 있다. 앞선 연구의 논의가 주로 파생 접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신희삼(2010)은 파생 접사와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합성부사의 목록을 선정하면서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이 조어 단위 전반에 관한 논의였다면 특정 부류의 접사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의미와 기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박정은(2007)은 ‘부정’ 한자어 접두 파생어 목록을, 이영희(2008), 나은미(2010)는 각각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 접미사와 복합어 목록을, 박지순(2015)은 ‘가격, 금액’을 나타내는 접사를, 구본관(2017)에서는 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사 선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전략적 차원의 어휘 교수에 대한 효용성에 주목한 연구들로 교수 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단어 형성에 따른 어휘 교육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던 상황에서 교육용 접사와 파생어 목록 선정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들이 파생어에 집중되어 있어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그 밖의 단위에 대한 논의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빈도와 중복도 같은 계량적 정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으나 생산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연구자의 직관이 우세하게 작용해 선정 기준의 객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그간 축적된 기초 자료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구축으로 논의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교재 개발의 관점에서 접사와 생산적인 어근을 묶어 조어 단위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제적인 교수·학습 자료 설계에 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3.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교재 개발 사례

3.1. 한국어 교재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교수가 학습자의 어휘 확장에 매우 유의미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어 교재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¹⁾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출간한 교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1)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학습자가 자주 접하는 30종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합 교재와 이에 딸린 워크북이다. 독립된 어휘 교재가 적고 기출한 어휘 교재의 경우 교육용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한 목록 자료인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대상인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교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교재로 학습하는 학습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

어휘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직업’, ‘부서’와 같이 특정 주제 범주의 어휘가 그러한 의미를 포함한 접사에 의한 파생어일 때 이들이 하나의 어휘장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 1>은 그러한 예 중 하나로 ‘회사와 부서’라는 제목 아래 파생어와 함께 명사구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증권사, 보험사, 출판사, 광고 회사, 무역 회사, 제약 회사, 총무과, 홍보과, 인사과, 비서실, 개발과, 기획과, 관리과, 재무과, 고객 관리과, (해외) 영업과

<표 1> ‘회사와 부서’ 관련 어휘 제시 사례: <재미있는 한국어> 4권 5과

이 교재의 경우 ‘무역 회사’와 같은 구 단위 어휘를 함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무역사’와 같은 어휘를 생산해 내지 않도록 한 점은 돋보이지만, 단어 형성 방법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 물론, 교실 수업에서는 다루어지겠지만 이처럼 어휘 교수·학습이 교사 또는 학습자의 몫으로 남는 문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여지가 있다.

<그림 1>은 또 다른 교재에서 ‘직업’ 관련 어휘를 제시하고 있는 예이다. 이 교재에서는 직업을 나타내는 접사 ‘-사’, ‘-가’, ‘-수’, ‘-원’, ‘-자’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을 활용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어휘들을 모아 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 의미 범주의 접사들을 모아 알고 있는 어휘들을 통해 단어 형성 원리를 귀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활용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 ‘직업’ 관련 접사와 어휘 제시 사례: 〈연세한국어〉 4권 2과

이 교재에서는 그밖에도 ‘접사’라는 메타용어를 표면에 내세워 학습자들에게 접사의 의미를 묻거나, 어근과 접사를 분리하여 제시하고 서로 어울리는 짝을 찾아 넣도록 하는 연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전자는 의미, 후자는 형태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둔 문제로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어휘 전략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학습적인 측면에서 단어 형성 원리를 표면에 내세우고, 그 전략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접사들을 한데 묶어 제시하는 데에 그쳐 접사 간의 의미 차이를 변별한 다거나 하나의 접사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는 풍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주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의미 범주로 나눠 관련 어휘를 제시하되, 의미 변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어휘의 의미와 함께 용법을 익히는 데에 더욱 유용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두 교재보다 어휘 확장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사를 제시하고 있는 교재도 있다. 해당 교재에서는 ‘어휘를 늘려 봅시다’라는 페이지를 두어 단원별로 접사를 하나씩 제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휘와 연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사 목록이다.

-답다, -어/하다, -적, -덧-, -스럽다, -거리다, -되다, -헛-, -반다, -쟁이, 맨-

〈표 2〉 ‘어휘를 늘려 봅시다’ : 〈이화 한국어〉 3권 어휘

이 교재에서는 각각의 접사가 갖는 의미 및 형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화용적 정보까지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접사가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문장 완성 연습 및 활용 연습을 두어 학습자가 배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격적인 어휘 교재가 아니라서 다룰 수 있는 접사 목록과 어휘가 극히 한정적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학습자들에게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학습 전략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는 부분적으로 어휘 확장을 돕기 위한 접사와 파생어들을 제시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첫째, 대부분의 교재들이 기능과 과제 중심의 통합 교재 형식을 표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어휘 학습을 위한 지면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나 새로 나온 어휘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밖의 어휘를 별도로 다룰 만한 영역이 사실상 없고, 셋째, 수업 운영의 측면에서 어휘 학습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의 제시나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접사 목록 중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수의 접사 선정 기준 또한 교재마다 상이하며, 일부 접사와 파생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어휘 확장 전략을 내재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보면 기능과 과제 중심의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교재에서 이러한 내용까지 모두 담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지도 모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전반에 걸쳐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학습자의 어휘 확장과 어휘 학습 전략 훈련을 돕는 어휘 독립 교재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3.2. 외국어 교재

상대적으로 학문의 역사가 긴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어휘 교수 이론을 적용한 어휘 독립 교재들이 많이 출간이 되어 있다. 이는 국내에 출간된 어휘 교재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단어 형성 원리에 초점을 둔 세 권의 어휘 교재를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교재 개발의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삼고자 한다. 다음은 분석 대상 교재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 Michael McCarthy·O'Dell Felicity 외(2017), 『English vocabulary in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ddleback Educational Publishing(2014), 『Common core skills & Strategies for Vocabulary』, Saddleback Educational Publishing.
- Rasinski Timothy(2014), 『Building vocabulary from word roots』, Teacher Created Materials Publishing.

『English vocabulary in use』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어휘 학습 교재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준별로 교재가 분권이 되어 있으며 초·중급 단계부터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한 단원을 따로 두어 학습 전략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각 단원별 학습 목표에 맞는 단어의 예시를 들어 의미와 원리를 설명한 후 이해 확인 및 표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Common core skills & Strategies for Vocabulary』는 독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어휘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모르는 어휘를 마주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추측 전략 및 효율적인 어휘 학습 전략으로써 단어 형성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 항목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 학습자가 연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Building vocabulary from word roots』은 목록형으로 제시되는 기존의 어휘 학습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메타인지와 메타언어를 통해 효율적인 어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접사, 어근을 이용하여 단어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어휘 학습서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어근과 접사, 어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전 활동을 한 후 확장된 연습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권의 교재는 세부적인 단원 구성 모형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학습자의 어휘 확장과 전략 훈련,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를 어휘 제시 방식, 연습 및 사용의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3.2.1. 어휘 제시

각 교재에는 많은 수의 어휘들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어휘들은 어근 및 합성어, 어원에 따른 단어 형성 원리, 품사 전성과 같은 문장에서의 기능, 의미 등을 기준으로 범주화되어 제시되었다. 어휘 제시 방법에 있어서 『Common core skills & Strategies for Vocabulary』를 제외한 두 권의 교재는 어근 및 접사의 형태와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명시적 방법이 선호되었다. 이는 교재의 사용자가 대부분 언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를 지난 성인학습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단어 형성 원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와 그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면이 있어 보인다.

어휘 제시를 위한 자료로는 사진 및 삽화가 활용됐고, 학습자의 어휘 입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자의 농도, 크기, 색깔의 변화를 준 텍스트 강조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언어 교수에서 학습 목표 항목을 부각시키기 위해 널리 활용

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특히, 학습자가 목표 단어의 어근 및 접사를 중심으로 한 형태적 특성을 인식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보조 도구로써 그 기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3.2.2. 어휘 연습과 사용

어휘 연습과 사용에서는 세 권의 교재가 공통적으로 형태 인지, 의미 확인 및 강화, 상황과 문맥에 따른 사용 연습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습 활동은 학습자들이 단어의 형성 원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며, 이들 단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예시와 맥락을 순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내재화할 수 있도록 형태, 의미, 사용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

먼저, 형태 연습에서는 어근과 접사 식별하기, 접사에 따른 품사 구별하기, 같은 유형의 어휘 분류하기와 같은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의미 확인 연습에서는 접사에 알맞은 어근 찾아 연결하기, 알맞은 뜻풀이 찾기, 그림에 알맞은 어휘 찾기, 유의어/반의어 찾기 등이 있었다. 그리고 사용 연습에서는 제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이나 대화 완성하기가 제시되었는데, 『Building vocabulary from word roots』의 경우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문맥에서 그 내용을 추론해 보는 연습 활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습 활동들은 학습자가 형태, 의미, 사용의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습 활동을 통해 목표 어휘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어휘 학습 전략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가 교재를 통해 배운 단어를 다시금 생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교재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는 어휘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미를 표현하는 주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현 차원이 아닌 이해 차원에서 어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 활동의 구안도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4.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교재 개발의 쟁점과 적용

4.1. 조어 단위 선정 방법

교육용 조어 단위 목록으로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조어 단위 목록을 선정해야 할까? 사실 이 하나의 질문, 그리고 질문 안에 포함된 ‘방법’이라는 말 속에는 연구 방법론의 선택이나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조어 단위 선정을 위한 참조 자료의 선택, 선정 기준이라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정 방법의 문제는 앞선 연구들에서도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왔던 문제이며, 교재 개발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수요목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어 단위를 위한 참조 자료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다음은 앞선 연구에서 참조한 자료들이다.

- 원미진(2014):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 5만 개
- 유미상(2008):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국립국어원, 2003) 목록,
300만 어절의 한국어 말뭉치
- 고주환(2008): 3종 교재에 출현한 접사 목록
- 서희정(2006): <표준국어대사전>, 기존 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학 연구에서 선정한
접두사 목록
- 정윤주(2005): 고영근(1989)에 제시된 638개의 접미사 목록,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국립국어원, 2003)

위의 목록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한국어 교육과정에 포함된 어휘 목록이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선정한 접사 목록들을 참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어 단위를 중심으로 한 어휘 교수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어휘를 확장하고 더 나아가 어휘 확장 전략까지 학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각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접사의 목록이나 수에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원미진(2014: 189)에서는 <한국어 기초사전>의 표제어 목록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와 한국어 학습 사전의 어휘 목록,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를 포괄하고 있어 특정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 온 앞선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어 단위 또한 교육용 어휘 목록임을 고려할 때 사용 범위(range)가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현화(2014)에서 선정한 어휘 목록 19,279개를 참조 목록으로 삼았는데, 이들 목록이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국립국어원, 2017),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국립국어원, 2012-2014),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 개발>(국립국제교육원, 2009; 2011)에서 선정한 교육용 어휘 목록과 함께 한국어 교재 말뭉치(2014년 기준 1-6급 완간 교재 5종의 본 교재, 워크북)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뭉치(1998-2012년 시행 기출 문제) 출현 어휘 목록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용 조어 단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²⁾.

다음으로 조어 단위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앞선 연구의 방법론은 사전이나 선행연구의 조어 단위 목록을 수용하여 그 안에서 교육용 목록을 선정한 연구와 어휘 목록으로부터 조어 단위를 귀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원미진(2014), 유미상(2008)에서 후자를 주요한 방법론으로 택하였는데, 이는 기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제 단어 형성에서 생산적으로 쓰이는 조어 단위들을 발견하여 학습자들에게 더욱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목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 강현화(2014) 역시 그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로 19,495개의 어휘 중 파생어 5,014개, 합성어 3,957개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정리된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과 조어 방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교육용 어휘에서 접두사 110개, 접미사 244개, 3,477개의 어근이 복합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목록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참조 목록이

2) 자세한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강현화(2014) 참고.

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조 목록으로부터 교육용 조어 단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빈도’와 ‘생산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교육적 활용의 측면에서 몇 가지 요소들을 덧붙이고 있다. <표 3>은 앞선 연구에서의 선정 기준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3>에 제시한 것 외에도 선정 기준을 제시한 논의들이 있다. 김정은(2003)은 빈도, 분포 범위, 학습 용이도, 학습자의 필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지옥(2009)은 생산성이 높은 접사, 의미가 분명한 접사, 언어생활에 자주 쓰이는 파생어를 교육용 파생어를 선정하는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생산성	빈도	중요성	난이도	의미	기능	참조 자료의 중복도
원미진(2014)	○	○					
신희삼(2010)	○	○	○	○			
유미상(2008)	○	○					
고주환(2008)							○
서희정(2006)		○		○			
정윤주(2005)		○			○	○	

〈표 3〉 조어 단위 선정 기준

앞선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들은 크게 생산성, 빈도, 중복도, 분포 범위와 같은 계량적 기준, 중요성, 난이도, 학습 용이도, 학습자의 필요와 같은 교육적 기준, 의미, 기능과 같은 언어학적 특성에 의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휘 확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조어 단위가 생산해 내는 어휘 수인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생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미진(2014)에서는 10개, 정윤주(2005)와 유미상(2008)에서는 2개 이상을 선정 기

준으로 제시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며 그 차이도 크다. 물론 원미진(2014)의 경우 5만 개 표제어 목록에서 출현한 어휘의 수가 10개이고, 유미상(2008)의 경우 5,965에서 출현한 어휘의 수가 2개이므로 상대적인 비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이상의 어휘를 만들어 내는 조어 단위를 원칙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았으며, 조어 단위 간의 의미 체계를 고려하여 교육적인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휘 수가 다소 적더라도 수용하였다. 그 외에도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일반 말뭉치나 연구자들의 경험적 직관을 기준으로 하여 조어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함시켰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 자료에는 출현하지 않았지만 <한국어 기초사전>에 ‘접사’로 등재된 502개의 표제어 중 사전이나 말뭉치 등의 용례를 통해 조어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조어 단위를 일부 추가하였다. 이는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 추출한 생산성만으로 접사의 중요도를 판정하기보다는 교수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목록을 보완하고 말뭉치의 특성으로 인해 누락될 수 있는 목록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본문에 수록할 주요 조어 단위 167개를 선정하였으며, 의미적 관련성에 따라 이들 접사와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조어 단위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는 총 271개의 조어 단위와 6,000여 개의 어휘가 다루어졌다. 여기에서 의미적 관련성이란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어휘 간에 일정한 의미 체계가 있는 것처럼 접사에도 그러한 체계가 존재하며 이를 함께 제시하면 학습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조어 단위 선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어 단위 분석 결과 및 《한국어 기초사전》의 등재 표제어 중 조어력이 높은 조어 단위
- 조어 단위 분석 결과에서 조어력이 높지 않더라도 일반 말뭉치나 직관에서 조어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위
- 일정한 의미 체계에 의해 짝을 이루는 조어 단위

4.2. 조어 단위의 제시 범위

한국어에서 복합어는 형성 방식에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눈다. 이 중 파생어는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 즉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고, 합성어는 실질형태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말이다(남기삼·고영근 2005: 190-191). 복합어는 직접 구성 성분 중 일부의 의미를 앞으로 해서 단어 전체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여 어휘를 산출해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휘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단어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며 어울려 쓰이는 구 단위의 어휘들이 있다. 강현화(2014)에서는 5,014개의 파생어와 3,957개의 합성어 외에도 약 849개의 명사구를 선정하였는데, 생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넓게는 이러한 항목들도 어휘 확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어휘 목록들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자료를 어디까지 제시를 해야 어휘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파생 접사는 어근과 달리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어근에 붙어서 어휘적인 의미나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파생어를 통해서 접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접사와 접사에 결합하는 어근의 의미적 속성을 안다면 처음 보는 어휘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앞선 연구들에서 주목했던 대상이 합성어보다는 파생어와 파생 접사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파생법에 의해 형성되는 어휘 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달리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든 어휘로 각 어근이 자립성이 있으며 일부 융합합성어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비교적 투명하다. 또한 강현화(2014)에서 3,957개의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의 수가 3,477개에 이를 만큼 어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부 생산성이 높은 어근을 중심으로 어휘를 제시하는 것은 효용성이 있지만 한정된 시간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접사를 가장 핵심적인 조어 단위로 포함시키고,

여기에 량(量), ‘서(書)’ 등과 같이 자립성이 부족하여 홀로 쓰이는 경우보다 접사처럼 어근에 결합하여 합성어를 생산적으로 만들어 내는 단음절 어근(접사성 어근)을 일부 포함시켰다. 사실상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러한 부류의 어근들은 기능적으로 접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변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별하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³⁾.

4.3. 조어 단위 분류 체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총 271개의 조어 단위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할 것인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배열 방식은 사용상의 편의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배열 방식에 따라 각 조어 단위에 대한 정보를 교수학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보다 폭넓은 어휘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다다 순의 사전식 배열 대신 의미 범주에 따라 조어 단위를 분류하여 배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첫째, 주제를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는 현 교육과정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둘째, 개별 조어 단위뿐만 아니라 특정 어휘 범주에 속한 조어 단위를 중심으로 보다 광범위한 어휘장을 형성하여 어휘 지식과 전략을 통합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셋째, 학습자로 하여금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한 조어 단위를 함께 학습하여 유사 의미를 가진 조어 단위에 대한 변별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단, 이때에는 변별 의미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있어야 학습자의 혼란을 줄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미 범주별 목록의 제시는 <한국어 기초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복합어에서 조어 단위의 의미를 추출하여, 아래 11가지의 의미 범주와 그에 속한 조어 단위 목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구분관(2017)은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근이든, 파생 접사든 단어 형성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그 요소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단어를 만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어근과 파생 접사를 구분하지 않고 단어 형성법에 참여하는 요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번호	의미 범주	조어 단위
1	사람	-가(家), -객(客), -관(官), -광(狂), -꾸러기, -꾼, 남(男)-, -남(男), -녀(女), -님, -민(民), -배(輩), -뻥이, -보, -사(士), -사(師), -생(生), -수(手), 시-(嫗), -아(兒), 여(女)-, -왕(王), 외-(外), -원(員), -이, -인(人), -자(者), -장(長), -쟁이, -주(主), -진(陣), 친-(親), -투성이
2	도구와 생활	-가(歌), -가(價), -감, -값, -개, -곡(曲), -국, -권(券), -금(金), -기(器), -기(機), -도(圖), -돈/돈-, -료(料), -망(網), -문(文), -물(物), -복(服), -비(費), -서, -세(稅), -식(食)/식(食)-, -액(額), -옷, -용(用), -작(作), -장(狀), -제(劑), -증(證), -지(紙), -지(誌), -탕(湯), -판(板), -품(品), -화(畫), -화(靴)
3	장소와 위치	-가, -가(街), 걸-/걸, -관(館), -구(口), 끝-/끝, 뒤-/뒤, -로(路), -면(面), 밑-/밑, -상(商), -석(席), -선(線), -소(所), 속-/속, -실(室), 아래-, 안-/안, 앞-/앞, 옆-/옆, 오른, 왼, 위-/위, -원(院), -원(園), -장(場), -점(點), -점(店), -쪽, -지(地), -처(處), -청(廳), -터, -편(便)/편(便)-
4	집단	-계(界/系), -과(科), -과(課), -국(國), -권(圈), -단(團), -류(類), -사(社), -업(業), -직(職), -체(體), -층(層)
5	모양과 양식	-미(美)/미(美)-, 반(半)-, -상(狀), -새, -세(勢), -식(式), -풍(風), -형(形), -형(型), -화(化)
6	성질과 상태1: 사람, 사물, 대상을 나타내는 말에 뜻을 더해 주는 말	경(輕)-, 고(高)-, 구(舊)-, 날-, 노(老)-, 늦-, 다(多)-, 단(單)-, 대(大)-, 막-, 맞-, 맨-, 부(副)-, 새, 생(生)-, 소(小)-, 신(新)-, 올-, 장(長)-, 저(低)-, 주(主)-, 중(重)-, 첫-, 초(初)-, 통-, 뜻-
7	성질과 상태2: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뜻을 더해 주는 말	-감(感), 개-, 과(過)-, 급(急)-, 기(氣), -난(難), -도(度), 되-, 드-, -뜨리다, -력(力), 무(無)-, 미(未)-, 별-, -병(病), 부(不)-, 불(不)-, 비(非)-, 새-, 셋-, -성(性), 실(實)-, -심(心), -애(愛), -염(炎), -욕(欲/慾), 재(再)-, 제-, -증(症), 진(眞)-, 짓-, 참-, 초(超)-, 최(最)-, -치다, -통(痛), 한-, 헛-, 호(好)-, 휘-

번호	의미 범주	조어 단위
8	의식과 행위	-담(談), -령(令), -사(辭), -설(說), -식(式), -어(語), -전(展), -전(戰), -제(祭), -질, -짓, -회(會)
9	시간, 수량과 단위	-간(間), -기(期), -날, -당(當), -대(帶), -량(量), -률/율(率), -별(別), -분(分), -새, 수(數), -씩, 온-, -율(律), -일(日), -철, 총(總), 통-
10	학문과 제도	-관(觀), -권(權), -론(論), -법(法), -사(史), -상(上), -시(視), -안(案), -제(制), -책(策), -하(下), -학(學)
11	문법적 뜻을 더해 주거나 품사를 바꾸어 주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동’의 뜻을 더해 주는 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피동’의 뜻을 더해 주는 말: 이-, -하-, -리- -기- •‘관형사명사’를 만드는 말: -적 •‘명사’를 만드는 말: -이, -기, -음/-口 •‘부사’를 만드는 말: -히, -이, -껏, -코, 내 •‘동사’를 만드는 말: -하다, -되, -시키다, -반다, -당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 •‘형용사’를 만드는 말: -하다, -되다, -스럽다, -답다, -롭다, -지다, -나다, -맞다, -다랗다

〈표 4〉 의미 범주별 조어 단위 목록

4.4. 조어 단위 및 어휘 제시 모형의 구성

어휘 지식을 형태, 의미, 사용으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어 단위에 대한 지식도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형태, 의미,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조어 단위에서의 형태 정보란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조어 단위 ‘-가’가 ‘음악’이라는 어근의 뒤에 붙어 ‘음악가’라는 단어를 형성하는데, 이때 ‘-가’가 ‘어근의 뒤에 붙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 정보가 된다. 다음으로 의미 정보는 ‘-가’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직업’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정보가 해당되며, 더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 정보는 ‘-가’가 ‘주로 음악, 사업, 소설과 같이 어떤 분야나 일을 나타내는 말’에

붙는다는 정보가 되며, 덧붙여 이렇게 만들어진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지식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형태: 조어 단위의 결합 위치
- 의미: 조어 단위의 의미
- 조어 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휘의 의미(적용 및 확장)
- 사용: 조어 단위에 주로 결합하는 어휘의 의미 속성
- 조어 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휘에 대한 지식(적용 및 확장)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어 단위의 형태와 의미, 사용 정보를 중심으로 한 <도입>, 조어 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휘 목록과 정보를 제시하는 <어휘 제시>, 앞에서 학습한 조어 단위 및 어휘 지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연습>의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그리고 의미 범주별로 묶인 각 장의 끝부분에는 <종합 연습>과 <확인하기>를 두어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한 조어 단위의 형태와 의미, 용법을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조어 단위 및 어휘 제시 모형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계	제시 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 형성 원리: 퍼즐 모양의 그림과 설명을 통해 결합 위치 설명 ■ 조어 단위의 의미: 퍼즐 모양의 그림과 설명, 대표 어휘를 나타내는 그림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설명 ■ 마인드맵: 조어 단위의 의미와 관련 어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화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 출현 어휘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한국어 기초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주요 어휘 보충 ■ 어휘 정보: 등급 정보, 원어 정보, 영어 번역어, 구 단위 표현, 비슷한말, 반대말, 관련어 ■ 예문

단계	제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어휘: 본문에 제시하지 못한 어휘를 추가로 제시 ■ <함께 알아 두세요> : 유의 관계 또는 반의 관계를 이루는 조어 단위를 포함해 함께 알아 둘 만한 조어 단위를 제시 ■ <이렇게 달라요> : 유의 관계 조어 단위의 변별적 쓰임을 제시 ■ <이렇게 써요> : 조어 단위의 결합 방식, 확장 의미 등을 포함한 용법 정보를 제시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어 단위별 연습: 형태, 의미, 관련어, 연어, 문장 또는 대화문 내에서의 맥락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 제시 ■ 확인하기 ■ 종합 연습

〈표 5〉 제시 단계별 정보 구성

위의 정보 중 마인드맵은 도입 단계에서 조어 단위의 의미를 다의 의미별로 구분한 후 각 의미별로 만들어지는 어휘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조어 단위에 대한 지식을 보다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의미는 <한국어 기초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참고하되, 조어 단위로부터 형성된 어휘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어휘의 관련어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조어 단위를 중심으로 한 마인드맵의 예시

다음으로 제시 단계에서는 개별 어휘의 등급, 번역어, 구 단위 표현, 비슷한 말, 반대말, 관련어를 포함한 어휘 정보와 예문을 제시하였다. 이 중 등급 정보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준별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 제시 어휘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있을 경우 해당 등급을 제시
- ㉡ : 제시 어휘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없을 경우 어근(뿌리가 되는 말)의 등급을 제시
- ㉢ : 제시 어휘 또는 어근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모두 없을 경우는 한국어 교재, 토픽의 등급, 계열 관계를 이루는 어휘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

또한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조어 단위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어휘 확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의 관계에 있는 조어 단위를 변별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설명을 기술하였다. <그림 3>은 어휘 제시 단계에서의 어휘 정보 제시에 대한 예시이다.

<div>□□□ 6</div> 고지대	高地帶 uplands; highlands ㉡ 고지 ㉡ 저지대 ㉡ 고지대 식물/주민, 고지대에 살다/오르다/위치하다 ㉡ 이 마을은 해발 600미터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div>□□□ 6</div> 고품격	高品格 high-class ㉡ 고품격 공연/서비스/여행/제품 ㉡ 이 미용실에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고품격의 서비스가 특징이다.
<div>tip 이렇게 써요 : '고-'와 '저-'의 쓰임</div> <p>◆ '고-'와 '저-'는 특정한 단어에 붙어 '높은' 또는 '낮은'의 뜻을 나타내며 반의 관계를 이룬다.</p> <p>㉡ 고기압 - 저기압, 고학력 - 저학력, 고혈압 - 저기압</p> <p>그러나 모든 단어가 항상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저개발', '저출산'과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는 활발하게 쓰이지만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p> <p>㉡ 고개발(?) - 저개발, 고출산(?) - 저출산</p>	

〈그림 3〉 어휘 정보 제시의 예시

4.5. 연습 활동의 설계

연습 활동은 조어 단위와 관련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강화하며 사용 능력으로의 전이를 도울 수 있는 장치로 어휘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크다. 따라서 목표가 분명한 다양한 연습 활동을 구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어 단위별 <연습 문제>와 의미 범주별 <종합 연습>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형태 인지 단계, 의미 확인 및 강화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형태 인지 단계는 조어 단위의 단어 형성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조어 단위의 분리와 통합, 알맞은 조어 단위 찾기, 조어 단위별 어휘 분류하기 등의 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도표 완성하기, 조어 단위 또는 어근에 밑줄 긋기/동그라미하기 등의 반응 유형과 연계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다음은 형태 인지 단계의 문항 예시이다.

1. 다음 <보기>에서 다음과 같이 뿌리가 되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오.

<보기>	간 <u>호</u> 사	
1) 요리사	2) 운전사	3) 미용사
4) 선교사	5) 기관사	6) 통역사

의미 확인 및 강화 단계는 접사의 의미와 관련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사전적 의미, 상황적 의미, 반대말, 관련 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단답식, 연결하기 등의 반응 유형과 연계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다음은 의미 확인 및 강화 단계에서 상황적 의미를 활용한 연습 활동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2. 서로 관계있는 단어를 연결하시오.

1) 지점장 • •

2) 학과장 • •

저는 컴퓨터 공학과와 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교수예요.





저는 부산에 있는 은행의 책임자예요. 우리 은행은 서울에 본점이 있어요.

- 이하 생략 -

다음은 그림을 활용해 의미를 확인하도록 한 연습 유형의 예시이다.

2. 다음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연결하시오.

(1) (2) (3) (4)



• • • •

• • • •

㉠ 반구형

㉡ 아치형

㉢ 원뿔형

㉣ 원통형

사용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어휘 사용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 문장, 대화문, 짧은 지문을 통해 어휘가 쓰이는 상황 맥락 파악하기 등의

또한 학습자들이 기존에 배운 접사를 활용해서 표현하게 하는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학습자의 어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8. 사회 계층에 대해 논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부유층/빈곤층

노년층/중장년층/청년층

그 외에도 각 장의 끝에는 <확인하기>를 두어 앞에서 제시한 어휘들을 모국어로 번역해 봄으로써 학습한 어휘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5. 결론

어휘는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 단위로 그 중요성이 크지만, 방대한 수의 열린 집합의 목록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하는 학습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단순히 어휘 지식을 익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효율적으로 어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어 교재와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육용 복합어를 선정한 강현화(2014)의 성과를 참고하여 실제 개발한 어휘 교재를 바탕으로 어휘 학습의 원리와 교재의 적용에 대해 기술한 연구이다. 이에 어휘 확장과 전략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실제 교수 현장에서 또는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어휘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교수·학습 설계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용 조어 단위 선정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였고, 다음으로 실제로 선정한 조어 단위와 어휘 목록을 교재에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하여 제시 모형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교재 개발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교재의 효용성을 다루는 논의는 아니므로 개발 교재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험 연구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지면 관계상 개발 절차와 모형을 상세히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들이 주로 파생 접사와 같은 특정 조어 단위의 선정에 초점을 두어 온 것과 달리 복합어를 형성하는 단음절 어근까지 포함한 단어 형성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어휘 교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방대한 분량의 연구 성과를 교재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재의 개발이 연구와 유리되지 않고, 교재 개발의 과정과 절차의 논의를 공유하여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학술적 논의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화(2016) 한국어교육 자료의 어종별 복합어의 특성 연구, 문법교육 26, 129-154쪽, 문법교육학회.
- 강현화(2016) 한국어교육용 복합어의 조어 단위 연구, 언어와문화 11-3, 45-72 쪽,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강현화·홍혜란(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모형 연구 -그림 어휘사전 워크북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권 3호, 1-30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화·홍혜란·유소영·김정현(2019), 『단어형성원리로 배우는 한국어어휘 1』, 소통 출판사.
- 강현화·홍혜란·유소영·김정현(2019), 『단어형성원리로 배우는 한국어어휘 2』, 소통 출판사.
- 고주환(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파생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2017),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연구 - 유사 접사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0권, 1-47쪽,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 권혜진(2015),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파생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덕신(2014),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파생어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학 제89집, 253~274쪽, 한국언어문학회.
- 김정은(2003), 한국어 파생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제22집, 91-139쪽, 이중언어학회.
- 나옥경(201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접미파생어 교육 방안 연구, 전북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정(200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접두파생어에 한 연구-고유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30집, 209-243쪽, 이중언어학회.
- 신희삼(2010), 단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교육의 방안에 관하여, 한국언어문학 제74집, 61-89쪽, 한국언어문학회.
- 원미진(2014), 한국어 학습자의 파생어 교육을 위한 접사 목록 선정 연구, 한국사전학 제23호, 180-204쪽, 한국사전학회.
- 유미상(2008),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을 위한 한자어 접사 및 파생어 선정에 관한 연구 : 말뭉치를 기반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옥(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파생어 교육, 이화어문논집 27, 159-172 쪽, 이화어문학회.
- 정윤주(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접미파생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창규(2007), 접두사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어문연구 35권 2호, 한국어문학회.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박이정.
- I.S.P Nation(2013),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2nd ed.)

강현화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3722

전화: 02-2123-5270

E-mail: khang@yonsei.ac.kr

홍혜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3722

전화: 02-2123-4199

E-mail: anna98kr@yonsei.ac.kr

유소영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3722

전화: 02-2123-2265

E-mail: usyong@yonsei.ac.kr

김정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3722

전화: 02-2123-2265

E-mail: jhkim_@yonsei.ac.kr

논문 투고 일자 : 2019년 6월 22일

심사 완료 일자 : 2019년 7월 31일

게재 확정 일자 : 2019년 8월 01일